

다산포럼



한영대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경남 산청에서 연세 지긋하신 분들과 논어를 읽고 있다. 2005년부터 경상대학교 한문학과와 산청군이 제휴를 맺어 남명 조식 선생을 모신 덕천서원 인근에 설립한 남명학연구원에 '산청선비대학'을 개설한 이래 18번째 이어오고 있는 고전 강독이다. 산청에서 꽃감 농사를 짓거나 공작에서 은퇴하신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근래는 매주 수요일 저녁에 3시간의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수업에 참석하고 있다. 참 건실한 공부 모임이라 하겠다. 이런 귀한 분들과 논어를 읽으니 그 즐거움이 배가 된다.

논어를 펴면 첫머리에 "배우고 때로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멀리서 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다움이 아니겠는가"라는 구절이 나온다. 대개 이 구절은 배움을 통해 삶의 기쁨을 깊이 음미하고 벗들과의 교류를 즐겨워하고 남들의 평가에 구애되지 않고 묵묵히 공부하며 스스로 즐겨워하는 자세에 대한 권면으로 이해된다. 과연 배움과 동학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백세의 스승, 공자의 참된 가르침을 드러내는 명언이다.

공자는 평생을 명분을 바로잡고 예(禮)가 실현되는 인(仁)의 정치를 고대했다. 심지어 상가집 개 취급을 받는 굴욕을 견디어가며 천하를 주유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고대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했

배움만으로 즐거울 수 있는가

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의 삶을 돌아보면 논어의 일면은 공자의 정치사상과 관련한 인명이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정명(正名)이나 극기복례(克己復禮)가 아니라 왜 배움과 관련한 구절이 가장 먼저 등장했는지 생각해볼까.

이는 논어의 편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논어에는 '유자(有子)'나 '증자(曾子)'와 같은 공자의 제자를 스스로 호칭하는 장면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자와 증자의 제자들, 곧 공자의 재전 제자들이 언행록의 모음집인 논어를 편집할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스승을 통해 들었던 많은 공자의 언행을 최종 편집하면서 무엇을 첫머리에 둘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많은 제자들이 마음으로 감동하여 동의했던 구절이 채택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자의 재전 제자들의 사회적 형편은 그다지 좋지않은 것으로 짐작된다. 맹자의 관찰에 따르면 천하는 양주가 아니면 목적이게로 돌아간다고 했다.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건국 초기의 우리나라의 건설했던 사회적 기강은 무너지고 저마다의 권위를 내세우며 제후왕들이 할거하면서 전국(戰國)시대는 말 그대로 전쟁으로 점철됐다. 백성들은 전쟁에 동원되고 농사를 제때 짓지 못하는 환경이 이어지면서 굶주려 죽는 시체들이 제대로 매장되지도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참상이 이어졌다. 맹자는 그런 전국의 상황을 증언하면서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자는 양주와 강렬한 규율을 기반으로 모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목적에게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인과 예의 정치사상을 계승했을 공자의 재전 제자들이 제대로 사회적 신분을 획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자는 68세에 더 이상 자신의 정치적 이상이 실현될 수 없음을 깨닫고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했다. 그 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는 공자에게 스승님처럼 훌륭한 인격과 뛰어난 학문을 갖춘 분께서 왜 사회적 발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것이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공자는 그러한 제자들의 아쉬움과 탄탄에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아닐까. "배우고 그것을 때에 맞게 실현하는 것도 또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이 아니겠느냐? 벗이 멀리서라도 오면 즐겁지 않겠느냐?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 감내하며 화내지 않는 것이 군자다움이 아니겠는가?"라며 제자들을 타이르고 권면했던 것이 아닐까.

공자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천하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큰 곤경을 겪었다. 제자들은 배고픔과 사회적 멸시를 견디다 못해 자신들이 무슨 풀을 따도는 코뿔소냐고 공자를 원망하며 말한 적이 있다. 이 때 공자는 군자라야 참으로 이러한 곤궁함을 감당하지, 군자가 아니라면 정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논어를 편집하던 당시 공자의 재전 제자들의 사회적 처지는 안정되지 못한 정치 지망생이자 제대로 취직하지 못한 지식인으로 존재했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공자의 격언보다도 공자의 이 말이 자신들의 처지를 위로해 주었던 것은 아닐까.

국가의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총 비용을 크게 줄인다고 한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군자라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에 위로받으며, 가까이에서는 찾기 어려운 먼 곳의 벗을 기다리며,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공부를 하며 스스로 즐겨워하며 군자다움을 잃지 않는 이 땅의 많은 학인들에게 공자의 이 말씀이 오늘에도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군자고궁(君子固窮)'을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로 설정한 분의 마음이 새삼스럽다.

청춘특독

마약만큼 무서운 도박 중독



김지현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4년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중독 수사 소식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마약이라는 단어가 주는 두려움 때문인지 마약으로 인한 중독의 심각성에 관하여 중앙 정부부터 시민들까지 깊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반면 대표적인 물질 중독인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과 달리 행위 중독으로 분류되는 도박 중독에 관해서는 올해 기준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고,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20대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 급증(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23년 발표 자료)했음에도 오락처럼 생각하는 등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

도박 중독은 도박으로 인해 본인, 가족 및 대인 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신

이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의 한계를 넘어서 자제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박을 한다면 도박 중독에 해당된다. 복권, 카지노, 경마, 스포츠도박에서 스마트폰으로도 손쉽게 접속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이르기까지 모두 도박 중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한 발짝 멈추는 시간을 보냈다.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도박 중독이 함께 증가하였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 경마 등 국가 사행산업이 중단되자 불법 도박을 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했다.

2023년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의 통계 자료(헬프라인 접수 현황)에 따르면 광주에서도 도박문제예방센터 이용자가 2020년 572명에서 2022년 792명으로 3년 사이에 220명(138.5%)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인 강원랜드로 가기 위해 오늘도 6시간 넘게 달리는 고속버스에 오르고 있는 도박 중독자가 많은 현실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도박문제예방지원원에서는 청년층 불법도박 예방을 위해 '청년도박문제예방활동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전국에서 22개 팀을 선정했다.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호남대학교 '단호박'팀(지도교수 배은경)이 선정돼 청년 도박문제 예방에 관심있는 사회복지학과생 열 명이 4월부터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다. 도박을 끊는 일을 뜻하는 '단도박'과 호남대학교의 '호'를 따서 합친 '단호박'이란 팀 이름처럼 5월 '2023 호남대학교 마음건강 캠페인', 8월 광주유스퀘어 이용 시민 대상 도박문제 예방 활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와함께 광주전남도박문제예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함께 9월에는 도박중독 추방의 날 홍보 캠페인 등을 펼쳤으며,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해 광주전남권을 넘어 다양한 대상에게 도박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다.

청년도박문제예방활동단 활동을 통해 중장년 남성 위주의 도박이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예방과 치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화 상담은 1336번, 온라인 상담은 넷라인(https://netline.kcgp.or.kr)을 통해 언제나 가능한 만큼 광주에서 더 이상 강원랜드로, 스마트폰 도박사이트로 향하여 미래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10월의 어느 멋진 밤



강정희  
강진 대구중 교사

우리 강진읍에 아트홀이 있어서 좋다. 건물 외관도 디자인도 어여쁘고 너른 잔디 마당도 있다. 전시장과 공연장이 두 곳씩, 연중 전시회와 공연과 인본 강좌와 심포지엄이 열린다.

딩동, 휴대폰에 안내 문자가 온다. 13일 저녁 7시, 세상에... 연극이 온다. 제목은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장 국어 특방에 공유하고 함께 갈 아이들을 모집한다. 그리하여 1, 2학년 아들 둘 딸 둘, 넷을 데리고 문화마실을 간다. 청소년 대상 작품이 아니라 무대가 화려하거나 볼거리가 많은 건 아니라고 미리 알려준다. 여성 2인극으로 등장인물이 단출하고 고부간 관계를 다룬 내용이라 아이들이 지루해하면 어쩌나 혼자 속으로 걱정을 조금 한다.

자주 가는 친절한 읍내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 음식을 남기지 말자는 내 말을 기억하고, 식성대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다. 식사를 마치면 늘 하던 대로 테이블을 정리한다. 남은 국물을 큰 그릇에 붓고 크기가 같은 접시를 쌓고 수저를 모으고 사용한 냅킨은 나가면서 휴

지통에 버린다. 그러나 사장님은 매번 우리에게 더 친절하다.

식사 후 아이들은 잔디광장을 지나 전시실로 향한다. 말하지 않아도 늘하던 대로 그림을 감상한다. 오늘 전시는 강진이 고향인 강운 화가의 '구름과 물, 동시적 관조', 잔잔한 표정으로 그림을 보고 있던 녀석들은 '물위를 굶다' 연작 앞으로 나를 끌고 가 나름의 감상과 비평을 곁들여 안내한다.

2층으로 올라간다. 174석 아담한 소공연장에 손으로 짚을 만큼 소수의 사람이 앉았다. 폭신한 의자에 몸을 기대며 생각한다. 인생이 꿈이라면, 무대는 꿈속의 꿈일까? 연극은 과연 연극다웠다. 나는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와 고부부 노인인 된 엄마가 떠올랐다. 손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랑하셨던 할머니, 딸만 내리 다섯을 낳은 우리 엄마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할머니였다.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결말은 또 뭐임? 아이들도 있는데 울고 그러면 내 체면이 좀 아닌데.

공연이 끝나고 관객과의 대화도 이어진다. 시어머니 박수경 배우, 며느리 박미정 배우, 박진성 연출자, 이 소담한 자리가 참 좋구나.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특별한 기억으로 남으리라. 사회를 맡은 극단 정자 임재필 대표가 우리에게 마이크를 준다.

"국어 선생님이 가지고 해서 왔어요.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도중에 배우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연기하시는 게 좋았어요."

아이다운 말이다. 아이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나도 손을 번쩍 들었다. "청소년극이 아님에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연극은 귀한 거잖아요."

연극 한 편을 마음에 품고 돌아오는 길, 읍을 벗어나 가로등도 없는 국도에 접어들다.

정아: 자 이제 소금 나눔을 해야지. 누구부터 할까? (녀석, 내 말투를 흉내 내다니)

준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옷을 바꿔입고 짙을 때 모습로 춤을 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재미있고, 저녁밥이 맛있었어요. (준이다운 발언)

유리: 도중에 배우들이 우리 곁으로 내려와서 말을 걸면서 연기하는 게 좋았어요. (그렇지.)

미니: 오늘 공연 감상으로 교실 수업 30시간 분량의 공부를 했습니다. (오!)

나: 시어머니가 '내가 죽으면...' 하니까 며느리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 그게 바로 국어 시간에 배운 '복선'이야. (기어이 직업 본능) 내 발언은 어땠어?

아이들: 국어 선생님인데 당연히 잘하시죠.

으쓱! 아이들 칭찬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교사도 어쩔 수 없다.

야경이 멋진 가우도 출렁리다 앞 삼저마을과 남호와 마랑에 차례로 아이들을 내려준다. 신마마을 유리 집 들어가는 골목 어귀에 자동차 불빛을 올려 뒷모습에 비추준다. 땡땡땡! 곧 아이들의 감사 문자가 올 것이다.

社說

지자체 역대급 건축재정에 현안사업 차질 우려

정부의 건축 재정 속에 지방 자치단체들도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고 있다. 세수 감소로 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금이 급감하면서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각종 사업을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지자체의 역대급 건축 재정이 민간 소비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도 암운이 짙고 있다.

중앙 정부의 건축 재정→지자체 사업 축소→민간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경상 경비 절감 등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도 지방 교부금이 올해보다 15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상 경비와 행사 축제성 경비 30%를 삭감하기로 했다. 현안 사업 축소 조정도 현실화 되고 있다. 전남도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전남에 투입된 국비 184억 원이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자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비료 가격 상승 부

담이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광주시는 사정이 더 나빠 내년 세입 재원은 5조 6895억 원인데 반해 실국 요구 예산은 6조 8684억 원으로 1조 1789억 원을 조정해야 할 상황이다. 지방 교부금 감소에다 지방채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급감한 탓이다. 부동산 관련 세입은 전년 대비 올 상반기에만 1134억 원이 줄었고 연말이면 2515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내년 자체 사업 예산에서 목표시는 30%, 화순군은 20% 감액해 제출할 것을 부서에 요청한 상태다.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으면 비용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만큼 건축재정을 타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재정 집행의 우선 순위를 잘 정해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차질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기왕이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어느때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중요한 시기다.

전남 첫 림피스킨병 발생, 방역 고삐 바짝 죄야

소 바이러스 전염병인 림피스킨병이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경기, 충북, 강원을 거쳐 었그제 무안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전남도는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615개 축산농가에서 키우는 소 2만 3000마리에 대해 육안검사를 실시기로 했다.

엇그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둘러본 무안 망운면의 림피스킨병 발생 농장은 공포감이 갈뻔했다. 29일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진 이후 출입금지 팻말이 세워진 축사 현장에는 방역요원들이 실재 없이 소독약을 뿌리며 차량과 인원을 통제했다. 살처분 작업을 위한 굴삭기와 크레인 장비가 속속 축사로 들어오자 긴장감마저 흘렀다.

이 축사는 림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소와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음에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 축사에서 키운 소 135마리는 모두 살처분될

예정으로 소에게 먹일 수백 단의 짚단은 무용지물이 됐다.

림피스킨병 발생으로 가까운 인근 축사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무안에서 40년째 농장을 꾸리며 5000마리 소를 키우고 있는 김시호 전국한우협회 무안지부장은 "우리 지역까지 번지지 않길 바랐는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며 안타까워했다. 100여개 농가에서 소 3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함평의 농가들은 제2의 구제역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림피스킨병은 치명률이 10%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이다. 따라서 작금의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자가 위생 총 동원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가들도 사육 소를 정밀 관찰해 감염 의심 개체가 있는지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특히 정결은 가장 중요한 예방적인 만큼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無等鼓

아버지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로 나섰다. 옛 전남도청 앞 광장 분수대에서 열린 '민중민주화 성회'와 팻불을 들고 '비상계엄 해제' 구호를 외치며 금남로를 행진하는 대학생들을 앵글에 담았다. 공수부대의 조준사격으로 도청 인근 향군회관 앞 도로에 쓰러진 시민과 전남대병원 영안실 옆 천막에 하얀 천으로 덮여있는 시신을, 손수레에 꽃상여를 싣고 걸어서 장지(葬地)로 향하는 일가족 모습도 놓치지 않았다.

아들은 당시 스무 살 미대 1학년이었다. 일간지 사진기자도 자유롭게 취재를 할 수 없는 환경인 까닭에 카메라를 든 사진가는 의도대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뒤편이나 길 건너편에서, 또는 걸어가면서 손에 든 채로 몰래 찍다 시피 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때로는 주변의 시선을 막아주는 가림막이나 '몸 감각'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진가는 카메라로 역사를 '기록'한다. 하지만 사진가는 어느 날 집 마당에서 어렵사리 찍은 필름을 소각할 수밖에 없었다.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사진관

등을 뒤져 5·18 관련 기록물을 샅샅이 수거해 없애려 하던 엄혹한 시기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필름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세상을 떠났다. 22년이 흐른 올해, 아들은 아버지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며 다섯틀(137컷)의 필름을 발견했다. 모두 태워 버린 줄만 알았던 필름 속에 '80년 5월'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사진가 아버지와 화가 아들이 본 '80년 5월' 전시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리고 있다. '최병오·최재영 1980년 5월 단상' (~내년 3월 10일까지) 전이다. 아들이 기록관에

기증한 아버지의 사진과 화가인 아들이 낱자별로 표현한 5·18 열 개 장면을 한 공간에서 보여준다. 43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137컷의 필름에는 위협을 무릅쓰고 역사의 현장을 기록하고자 했던 한 사진가의 혼(魂)이 담겨 있다. 광주 시민들이 겪은 5·18 관련 기록물은 무엇보다 소중한 의미 값다. 메모와 일기, 사진, 편지 등 어느 하나 아무렇게나 버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줄 기록은 역사의 나이트를 만든다. /송기동 예방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직극)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